

신문, 방송, 포털매체의 의견 다양성 비교분석

‘통진당 해산 선고’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노현주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

윤영철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본 연구는 다원화된 언론 생태계에서 한국 언론(신문, 방송, 포털)의 의견 다양성이 매체 내, 그리고 매체 간에서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총 7개의 언론매체(〈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채널A, JTBC, 네이버)를 대상으로 2014년 12월 사회 전반에 이념적 파장을 일으켰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관련 뉴스를 분석했다. 의견 다양성은 세부적으로 기사 제목, 취재원(출연자), 그리고 기사 내용 전반에 드러난 내적·외적 의견 다양성으로 나누어 측정했다. 분석 결과, 기사 제목 다양성은 신문매체에서 이슈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이념적 지향점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었다. 취재원 다양성은 취재원 소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더니 〈조선일보〉와 채널A 등 보수 언론매체에서 야당 측 인사를 많이 활용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매체 내 의견 다양성 측면에서 분석대상 매체들 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 〈한겨레〉가 내적 다양성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KBS는 제일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외적 의견 다양성 경우도 매체들 간에 이념적 지향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면서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적 스펙트럼 간극이 작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조선일보〉가 보수적 이념성을 가장 강하게 내비쳤고, 그 대척점에는 〈한겨레〉가 진보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편, 이념적 지향성이 낮게 나와서 중립에 가까운 매체는 포털뉴스 네이버였다. 이 연구는 매체 내적·외적 의견 다양성을 수치화시켜 교차분포도를 도출함으로써 한국 언론 의견 다양성 지형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또한 포털뉴스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포털매체와 여타 다른 주요 뉴스매체간의 의견 지향성 및 다양성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의견 다양성, 내적 다양성, 외적 다양성, 이념적 지향점, 포털뉴스

* 이 논문은 노현주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15)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joonoh1020@gmail.com, 제1저자

*** yoon119@yonsei.ac.kr, 교신저자

1. 문제제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떤 유형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가에 따라 언론에 기대하는 역할의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자유주의(liberalism) 전통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언론으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공적 이슈에 관해 식견을 제대로 갖추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즉, 언론은 공적 이슈에 관해 식견을 갖춘 시민(well-informed citizen)을 육성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데, 그 책임의 수행 여부는 미디어 다양성(diversity)을 적절히 보장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언론이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개념적 잣대가 바로 미디어 다양성이다.

미디어 다양성 개념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여러 관점으로 그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개념의 다차원성으로 인해 다수의 조작적 정의를 동원하여 여러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언론매체의 뉴스 내용에 담긴 의견 다양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 이유는 다양한 의견을 접해보지 않고는 식견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요한 논쟁적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성찰이나 숙의 없이 기존 의견을 강화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고 정치 과정에 관여하고 참여한다면 민주주의의 건강성이 훼손되기 마련이다.

미디어 내용에 드러난 의견 다양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왔다. 하나는 개별 매체 내에 존재하는 의견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적 다양성(McQuail, 1992), 종적 다양성(Entman, 1985), 혹은 매체 내 다양성으로 개념화되었다. 다른 하나는 한 사회 내 존재하는 여러 매체들이 내세우는 의견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측정하는 차원에서 외적 다양성(McQuail, 1992), 횡적 다양성(Entman, 1985), 혹은 매체 간 다양성의 영역이다.

미디어의 의견 다양성은- 내적 의견 다양성이든 외적 의견 다양성이든지 간에- 언론이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추구해왔던 덕목이다. 인쇄매체만 존재했던 18, 19세기에는 각기 다른 이념적·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정파적 신문들이 다수 출현함으로써 신문들 간의 외적 다양성이 증가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신문의 기업화가 진행되어 대중매체로서의 입지를 굳힌 일부 거대 신문은 객관보도 양식을 도입해 정파적 색채를 희석시켰으며, 라디오와 TV는 공정성과 공익성의 기치 아래 내적 의견 다양성 유지의 책무를

떠안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20세기 경향성이 강한 인쇄매체들은 외적 의견 다양성 유지에 기여한 반면, 공적 책무를 안게 된 지상파 방송은 내적 의견 다양성을 보장하는 일종의 역할분담이 정착된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 내적·외적 의견 다양성을 구현하는 매체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우선 인터넷뉴스매체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뉴스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데 반해, 신문의 영향력은 급격히 감소했고 방송매체도 이용 측면에서 서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뉴스생태계의 도래가 미디어 의견 다양성 제공 환경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20세기 모델의 전통적 신문과 방송,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디지털 뉴스매체, 그리고 뉴스유통 과정의 강자로 등장한 각종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 등이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의 의견 다양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디지털 시대에도 의견 다양성이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는 디지털 언론의 존재이유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디지털뉴스생태계에서 미디어 의견 다양성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디지털뉴스생태계에 존재하는 의견 다양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물론 모든 매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언론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구축하는 주요 매체-신문, 지상파방송, 종편방송, 포털 부문에서-들을 선별하여 각각의 내적 의견 다양성과 외적 의견 다양성을 측정할 것이다.

여기서 분석대상 매체 부문을 신문, 지상파방송, 종편방송, 포털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환경으로 전환되면서 방송의 내적 다양성 책무 관련 규제의 이론적 근거인 자원의 희소성 원칙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매체 부문에 속하는 매체들이 보이는 내적 다양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다. 특히 법적으로 언론매체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포털의 내적 다양성 책무가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실제로 포털의 내적 다양성이 여타 다른 부문의 다른 매체들과 비교해볼 때 어느 정도 인지를 비교해보는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이다. 둘째, 지상파방송과 종편 간 의견 다양성을 비교함으로써 어느 매체가 이념적으로 어느 쪽으로 얼마나 쏠려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내적 다양성을 측정함으로써 양자의 공정성 책무 수행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포털에 제공하는 뉴스의 편향성 여부가 논란거리로 부각되고 있는 2016년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볼 때, 이 연구에서 진행하는 의견 다양성 측정은 편향성 판단을 위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답을 얻고자 했다. 첫째, 2014년 12월 현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보도 분석을 통해 주요 매체의 이념적 위치를 측정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는 이념적 지형도는 어떤 모습인가? 즉,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각각의 매체가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는 어디이며 매체 간의 상대적 거리는 얼마인가? 둘째, 이용점유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포털이 표방하는 이념적 위치는 어디이며, 내적 의견 다양성 차원에서 기존의 전통 언론과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2. 이론적 배경

1) 미디어 다양성과 의견 다양성

미디어는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 이슈에 대한 의견과 각기 다른 관점에 대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전달자 역할을 수행한다(Wildman, 2007).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본인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다양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실제로 한 국가 내에 미디어가 다원화되면 언론의 시장집중도가 낮아지고, 다양성은 증가한다는 주장이 만연해왔다(Albarran, Pilcherm, Steele, & Weis, 1991; Alexander & Cummingham, 2007; Li & Chiang, 2001; Litman, 1979). 한국의 경우 종편채널의 등장은 방송시장에서 보도 주제의 다양성을 증가시켰고(조은영 · 유세경, 2014), 지상파채널로 하여금 장르와 콘텐츠 등에 있어 프로그램 다양성을 증대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조익환 · 이상우, 2012). 그러나 주제나 장르 차원의 다양성 증대가 반드시 보도의 질적 향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이 연구의 관심사인 보도의 의견 다양성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 출구의 증가가 사회 내 여론 다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들의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다원화된 언론이 외부 정치세력이나 정당과 연계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사상과 시각을 제공했다는 분석결과(임영호, 2005)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양극적 논조 구조는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결과(이진로, 2011; 최영재, 2011)도 있다. 미디어 수가 늘어나며 뉴스 보도가 다양해지는 현상이 사회 내 여론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매체별 의견 다양성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론은 언론의 보도가 제시하는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이준웅, 1997).

많은 학자들은 미디어 다양성에 대해 자기 나름의 해석을 제시하며 정의를 내려왔다 (Grant, 1994; Napoli, 1999; van der Wurff & van Cuilenburg, 2001; Webster, 2007). 이 중에서 나폴리(Napoli, 1999)는 다양성을 내용 다양성(content diversity), 취재원 다양성(source diversity), 노출 다양성(exposure diversity)으로 구분했다.¹⁾ 우선, 내용 다양성을 범주화하면 ‘주제’, ‘취재원’, ‘의견’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이진영 · 박재영, 2010). 취재원 다양성은 ‘인터뷰한 취재원의 수’, ‘인용부호의 사용’, 그리고 ‘상반된 의견제시’ 등을 통해 언론사가 보도의 객관성을 구현했느냐를 보는 것이다(송용희, 2005).²⁾ 노출 다양성은 ‘수직적 노출’과 ‘수평적 노출’로 구분된다. 이는 엔트먼(Entman, 1985), 엔트먼과 와일드먼(Entman & Wildman, 1992)에 의해 정립된 두 가지 차원의 ‘종적 다양성(vertical diversity)’과 ‘횡적 다양성(horizontal diversity)’을 일컫는다.³⁾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집중하고자 하는 ‘의견 다양성(opinion diversity)’이 있다. 의견 다양성은 미디어에서 사회 · 정치 · 문화적인 관점을 얼마나 다양하게 전달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적 다원성 확보 및 여론형성 과정에 관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Napoli, 2003). 그간 정치적 관점에서 의견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미디어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의 공익적 의무 수행을 평가하는 유효한 잣대로 활용되어왔다(Einstein, 2004). 언론사의 편향된 이념성이 여론 다양성을 해할 수 있다(Baker, 2008). 그러므로 다양한 논조와 경향을 지닌 언론기관이 확보되어야 객관적 규범질서를 보유한 언론의 자유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문재완, 2003).

의견 다양성은 크게 ‘내적(internal) 의견 다양성’과 ‘외적(external) 의견 다양성’으로 구분된다. 내적 의견 다양성은 한 언론사 내의 보도 내용에서 발견되는 시각의 다양성을

1) 나폴리(1999)는 세 가지 다양성에 대해 “민들이 다양한 사상을 놓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내용 다양성), 광범위한 정보원이 제기한 사상(취재원 다양성)은 여러 시민들에 의해 소비되어야 한다(노출 다양성)”고 설명했다.

2) 어떠한 성향의 취재원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주제의 기사라도 보도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이동근, 2004). 주로 언론사는 뉴스 가치가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정부 관료나 정치지도자들을 취재원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Tuchman, 1978). 이는 곧 제한된 취재원의 입장에서 본 현실을 구성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심훈(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취재원 의존도가 줄어드는 대신에 기업 취재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엘리트 취재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언론이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사회권력의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이원락, 1991; Gitlin, 1981; Soloski, 1989).

3) 종적 다양성은 한 언론사 내의 보도 내용에서 발견되는 시각의 다양성(내적 다양성)을, 횡적 다양성은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언론사들 간 보도 시각의 차이에 관련된 다양성(외적 다양성)이다. 미디어의 외적 다양성 논의는 미디어의 소유 규제 논의와 밀접히 연관된다.

의미하고, 외적 의견 다양성은 한층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언론사들 간 보도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이념적 다양성을 일컫는다. 의견 다양성이 미디어 내적·외적으로 각각 어떻게 발현되는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다양한 논조와 경향을 지닌 언론기관의 존재가 확보되어야 객관적 규범질서를 보유한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문재완, 2003). 본래 이념성이 강한 기성 언론들과 수용자 반응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포털이 뉴스를 전달함에 있어서 내적, 그리고 외적 다양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밝혀내는 일은 다매체 시대의 수용자로서 늘어난 채널의 수만큼 언론의 자유도 넓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길이다. 또한, 미디어가 노출하는 의견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건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 전반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⁴⁾

2) 언론의 정파성과 이념적 지형도

민주주의 사회 내 언론은 ‘식견 있는 시민’⁵⁾을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Glasser, 1984). 언론의 왜곡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는 자칫 올바른 시민의식 형성을 방해하여 참여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정연우, 2010). 언론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호에 정부를 견제 및 감시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수호하며, 그들의 합리적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다(Dahl, 1991).

그러나 각 언론사의 세계관, 방침, 이익관계, 그리고 당파성 등을 이유로 다양성이 전제가 된 공정 보도의 원칙은 지켜지기 어렵다.⁶⁾ 더불어 최근 언론 수의 증가는 매체들 간의 보도전쟁에 촉매제가 되었고 뉴스 가치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이준웅·최영재, 2005). 특히 인터넷의 등장은 개인의 ‘필터링’ 능력을 고양시켰다. 필터링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을 단편적으로 습득하고 선호하는 논조의 기사만을 집약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Dahlberg, 2007). 이와 같은 행위의 반복은 뉴스 수용자들로 하여금

4) 커런(Curran, 1991)은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미디어가 지향해야 할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는 물론이고 오락 부문에서도 가치와 관점의 다양성을 갖추어야 하며, ② 미디어의 일부는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자원이 열악한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해야 하고, ③ 사회의 공동 목적보다는 다양한 집단 간의 차이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일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식견 있는 시민은 공공토론과 심의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속의민주주의에서는 이들을 일컬어 ‘공적 시민’이라 하였다(Mullard, 1999)

6) 언론사의 뉴스를 취급하는 방식과 보도의 지향점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Groseclose & Milyo, 2005). 방송사의 콘텐츠는 언론사 내·외부의 끊임없는 역학관계에 의해 생성되는 결과물이므로 뉴스의 관점과 이념적 성향 및 논조에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이제·송진, 2011).

일관된 주장만을 키우고 사회 내 극단에 위치한 의견들을 고양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중도에 있는 의견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나 무시될 확률이 높아진다. 의견의 극단화는 해당 사안에 대해 ‘숙고하는 집단’을 양쪽으로 이동시키고 궁극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던 생각들도 완전히 다른 입장의 그룹에 속하게 한다. 이는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기회를 제약하고 궁극에는 사회 내 안정성과 공론장을 동시에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Sunstein, 2001).

언론이 어떤 이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다루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수용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기도 하다. 언론에 의해 대변되지 않는 의견들은 다른 의견들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연결되고 민주주의적 토론과 참여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여론 집중도조사위원회, 2013a). 그러므로 언론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여론의 다양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관점에 노출된 사람들일수록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고 여론 형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할린과 맨시니(Hallin & Mancini, 2004)는 한 국가 내 언론지배구조 비교연구를 통해 세 가지 미디어 모델을 제시했다.⁷⁾ 그중에서 북대서양/자유주의 모델(North Atlantic/Liberal model)은 상대적으로 시장 메커니즘과 상업적 미디어에 지배를 받는 모델로 일찍부터 신문이 역사를 가지고 강력한 매체로 발전해온 특징을 띤다. 방송의 등장과 함께 신문은 정점에서 내려가고 상업성을 띠며 자연스럽게 독립적으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분극적 다원주의 모델(Polarized Pluralism model)은 상대적으로 미디어의 상업성이 약한 반면, 국가의 권위에 영향을 받아온 모델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미디어는 대부분 신문의 역사가 짧고, 비교적 낮은 언론의 자유성 및 직업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할린과 맨시니의 미디어 모델 중 사실상 분극적 다원주의 모델에 가까운 유형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신문매체는 정치적 대립이 강한 갈등적 사안에 대해 이념성을 확연히 드러내왔으며(황치성, 2008), 때로는 언론이 제시하는 정보를 둘러싼 정파적으로 갈린 양 진영의 간극 때문에 구성원들 간에 화합을 방해받기도 했다(최현주, 2010). 이처럼 양극화된 정치구조의 영향을 받은 한국 언론의 정파성 및 이로 인해 발현된 의견 다양성은 언론이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혹은 어떤 이슈를 다루는가에 따라 역동적

7) 할린과 맨시니(2004)는 각 나라의 미디어 비교연구를 통해 세 가지 모델-북대서양/자유주의 모델(North Atlantic/Liberal model), 민주적 조합주의/북유럽 모델(Democratic Corporatist/Northern European model), 분극적 다원주의/지중해 모델(Polarized Pluralism/Mediterranean model)-을 제시했다.

으로 변화할 것인데, 그 추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해내는 작업을 통해 한국 언론의 이념적 지형도를 조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포털매체의 영향력 증대와 다양성 책무

숙의민주주의는 민주적 결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숙의(deliberation)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을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합리적 토론을 위한 숙의의 특징을 살펴보면 양적 특성과 질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사람들의 수와 범위를 숙의의 양적 특성,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입장들의 반영은 숙의의 질적 특성이라고 할 때(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2013a), 나와 다른 의견을 접하는 건 숙의의 질적 특성을 높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언론이 숙의민주주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숙의의 양적 특성만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의견 다양성을 높임으로써 숙의의 질적 특성도 함께 증가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의견 다양성은 민주주의 사회를 견고하게 만드는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중이 스스로 상이한 의견들을 비교 및 판단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의 장이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언론이 이와 같은 책무를 소홀히 하여 다양성을 크게 위축시킨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다양성을 증진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기존에 논의된 미디어 다양성 규제 정책은 주로 취재원 다양성과 내용 다양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각각 미디어의 소유 규제와 장르 규제의 형태로 나타난다(임정수, 2004).⁸⁾ 또한 정부의 규제는 종이매체나 인터넷매체에 비해 방송에 많이 가해졌는데, 그 이유는 방송매체가 희소하며 공공재인 전파 자원을 사용하고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타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융합시대에는 신문·방송·통신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공공재를 별도로 규정하기 어렵고 희소성 원칙도 그 실효성을 점차 잃고 있으므로, 영향력 요인이 매체 규제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즉, 영향력이 큰 뉴스 출구가 사회적 책무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영향력이 급증한 포털매체에 대한 규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포털의 법적 지위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이므로, 엄밀히 말해

8) 미디어의 소유 규제는 주로 소유권 다양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미디어의 소유 집중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반면, 장르 규제는 내용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 미디어의 내용과 그 제공자들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은 미디어정책에서 가장 오랜 세월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목표라 할 수 있다(박주연·전범수, 2007).

서 언론매체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타 언론매체에 적용하는 규제근거와 규제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황성기, 2007). 포털의 실질적 활동과 그로 인한 영향력의 규모를 고려해볼 때 이미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언론에 부여하는 공적 책무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이동찬, 2008).

포털의 영향력 증대에 관한 근거는 찾기 어렵지 않다. 네이버(Naver)나 다음(Daum) 등 거대 포털미디어들은 온라인 저널리즘 시장에서 이미 뉴스의 재매개 서비스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⁹⁾ 또한 2015년도에 발간된 여론집중도 조사 보고서(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2015)를 보면 네이버(18.1%)가 신문·방송·인터넷 부문에 걸친 모든 뉴스매체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을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일보> 계열(8.9%)은 물론이고 공영방송인 KBS의 모든 뉴스출구(TV, 라디오, 인터넷)의 영향력 지수인 17%까지도 상회하는 수치다. 물론, 포털이 법의 관점에 볼 때 언론이 아니므로 타 언론매체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여러 연구에서는 포털의 기능 및 실질적 영향력 확대라는 차원에서 언론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¹⁰⁾ 그렇다면 언론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포털이 그 영향력에 합당한 책임 있는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털이 얼마나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은 포털의 공정성 책무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경험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이 연구가 분석대상에 포털매체를 포함한 이유라고 하겠다. 인터넷 부문으로까지 확대된 뉴스생태계가 어느 정도의 외적·내적 의견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향후 속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언론정책 수립에 필요한 준거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미디어의 의견 다양성 지형을 파악함으로써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 전반의 다양성 구현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뉴스생태계의 의견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슈는 2014년 12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정당해산 선고'였다.

9) 2012년 12월 17일부터 2013년 2월 3일까지 자기기입식 전자 설문으로 2000명의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나스미디어(2013)에서 시행한 '2013 NPR(Netizen Profile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뉴스 이용자 중 89.3%가 뉴스를 주매체로 포털사이트의 뉴스 섹션을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10.7%의 이용자들만이 언론사닷컴 등 뉴스 전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희완(2006)은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을 변경함으로써 의제설정의 기능을 한다고 했고, 이민규(2006)는 소비자들의 인터넷 이용 규모,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의제 설정 주도권이 포털을 중심으로 재편된다고 하였다. 또한, 포털뉴스는 사이트의 에디터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최민재·김위근, 2006), 포털이 기존 언론의 뉴스를 재매개하는 행위 자체가 게이트키퍼라고 본 시각도 있다(황용석, 2005).

할린(Hallin, 1986)에 따르면 보도의 소재는 합의(consensus), 합법적 논쟁(legitimate controversy), 일탈(deviance)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합의의 영역은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의 영역이고, 합법적 논쟁의 영역은 다양한 가치와 시각들이 갈등을 벌이는 영역이다. 뉴스 소재가 합의의 영역보다 합법적 논쟁 영역에 있을 때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의 지향점들이 만나 서로 격렬하게 부딪침으로써 헤게모니적 투쟁이 벌어진다(한동섭 · 임중수, 2001). ‘통진당 해산 선고’ 이슈 역시 다양한 견해가 충돌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속의민주주의의 작동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사례로 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현재의 통진당 해산 선고’ 보도에 드러난 방송 · 신문 · 포털의 뉴스 제목과 취재원 활용에서 나타난 다양성은 어느 정도이며, 매체들 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현재의 통진당 해산 선고’ 보도에 드러난 매체들 간의 의견 다양성(외적 의견 다양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 보도를 통해 나타난 개별 뉴스매체의 이념적 위치는 어떻게, 얼마나 다른가?

연구문제 3. ‘현재의 통진당 해산 선고’ 보도에 드러난 개별매체 내의 의견 다양성(내적 의견 다양성)은 각각 어느 정도이며, 매체들 간에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가?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

(1) 분석대상 선정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언론매체는 방송사, 신문사, 그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다. 방송사는 KBS, SBS, JTBC, 채널A, 신문사는 <조선일보>, <한겨레>, 그리고 포털사이트는 네이버로 선정했다. 2013년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연구보고서(2013a)에 따르면 매체별 여론영향력 점유율 분포에서 이미 텔레비전 방송(48.1%) 다음으로 인터넷뉴스(30.7%) 소비가 가장 많았고 종이 신문은 13.9%에 그쳤다. 방송은 지상파방송 계열이, 신문은 전통 일간신문 계열이 상위 이용점유율을 기록했다. 인터넷매체 내의 이용점유율은 네이버(32.4%)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네이버는 뉴스를 생산하는 매체는 아니지만, 이용자에게 어떤 뉴스를 제

시할지와 기사의 배치 및 헤드라인 형식 등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자체 내 편집자들의 게이트키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털매체의 뉴스섹션이 갖는 실질적인 언론성과 여론 영향력을 감안하여 새로운 형태의 언론기관으로 보고자 했다.

포털 외의 다른 언론사들은 언론사 조직의 소유형태와 소유주의 이념적 노선이 취재 관행 및 보도정책에 영향을 끼친다(Groseclose & Milyo, 2005)는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석대상을 선정했다. 방송은 조직의 소유구조상 차이가 나는 지상파채널 두 개(KBS와 SBS)와 보도의 이념적 성향 등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종편채널 두 개(JTBC와 채널A)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¹¹⁾ 신문은 사회 갈등적 이슈에 있어 이념적 성향에 따라 보도의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낸 한국의 대표적 보수/진보지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최현주, 2010)를 선정했다.

(2) 분석자료 수집

연구의 분석을 위해 현재가 통진당 해산 심판의 결과로 정당해산 선고를 내린 당일(2014년 12월 19일)~2014년 12월 26일) 동안 각 매체의 메인뉴스 전수를 수집했다. 메인뉴스는 방송국의 메인뉴스 프로그램(KBS <뉴스9>, SBS <8 뉴스>, JTBC <뉴스룸>, 채널A <종합뉴스>)과 일간신문에 보도된 기사(영상 뉴스 포함), 그리고 네이버(<http://www.naver.com>)를 URL로 둔 뉴스 섹션에 노출된 기사를 뜻한다.¹²⁾ 본 연구는 실제 다수의 뉴스 소비층이 이용하는 방식을 따르기 위해 PC 버전이 아닌 모바일 버전에서 네이버 뉴스의 수집이 이루어졌다.¹³⁾ 또한 네이버 앱에서 메인화면에 걸린 기사들뿐만 아니라 뉴스 섹션에 있는 관련 기사

11) JTBC는 <중앙일보>, 채널A는 <동아일보>가 출자하여 만든 방송사다. JTBC는 2013년 언론인 손석희를 보도담당 사장으로 영입하고 <중앙일보>와 독자적인 뉴스룸을 운영해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2013년 12월 19일부터 31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지상파채널 3사, 종편채널 4사의 '시청자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채널 MBC·SBS를 누르고 JTBC(13.3%)가 전체 2위를 차지했다. 공영방송인 KBS(27.7%) 바로 다음이었다. JTBC는 주로 야권층 또는 진보 성향의 지지를 받았고 KBS는 보수 성향 응답층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JTBC는 채널A뿐만 아니라 KBS와도 이념적 대척점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라효진, 2014).

12) 포털의 경우 뉴스를 재매개하는 역할만 수행하므로 '네이버 뉴스'란 네이버라는 회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포털의 메인화면에 실시간으로 게시하는 각종 언론사의 뉴스를 지칭한다. 따라서 네이버를 제외한 6개의 매체의 기사들도 네이버 메인 뉴스 섹션에 큐레이션되어 있다면 이는 네이버라는 포털매체가 게이트키퍼 과정을 거쳐 '선별'한 기사로 보아 개별기사로 포함시켰다.

13) 최근 전 연령층에서 모바일 기기로 포털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신지형·하형석, 2014). 스마트폰상에서도 웹(web)보다 앱(app)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증가해 앱 사용시간이 전체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81%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Nielsen, 2012).

들을 전부 캡처해 PC버전과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된 기사는 총 606건으로 <한겨레> 64건(10.5%), <조선일보> 54건(8.9%), 채널A 54건(8.9%), JTBC 29건(4.8%), KBS 21건(3.5%), SBS 15건(2.5%)이었다. <연구문제 1> 중 뉴스 제목에 관련된 분석은 전체 기사(606건)를, 취재원 소속에 관련된 분석은 전체 기사에서 드러난 취재원(1,638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은 의견이 포함된 기사에서 드러난 의견 문장(2,316문장)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즉,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각각의 측정 항목에 따라 기사, 취재원, 의견 문장으로 나뉘어 명시하는 바다.

해산 선고일(2014년 12월 19일)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 각각 열흘 동안 분석 매체의 해당 이슈 관련 기사 수를 세어본 결과, 일주일 이전에는 거의 모든 매체에서 관련 기사가 전무했고, 선고 이후 일주일 동안 관련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다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기를 선고일 포함 그 이후로 잡았는데, 네이버에서 실시간으로 기사가 업데이트되므로 선고 전 뉴스를 전수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포털에 배치된 뉴스들은 실시간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언제 뉴스를 표집하느냐가 자료 수집의 관건이었다. 자료 수집에 앞서 사회적으로 큰 정치적 사건이 터졌을 때 네이버 정치 섹션에 한해 뉴스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되는지 연구자가 1차적으로 관찰하였다.¹⁴⁾ 그 결과, 오전 10시~11시 사이와 오후 3~4시 사이, 9~11시 사이 시간대에 해당 이슈와 관련된 기사들이 가장 많이 업데이트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사자료 수집 시간대는 오전 11시, 오후 4시, 그리고 오후 11시로 정했다.

2) 주요 개념의 정의와 변인의 측정

(1) 기사 제목 다양성

기사를 읽기 전에 간략하게 본문의 맥락을 제시하는 일은 사람들이 해당 이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Brandford & Johnson, 1973). 또한, 방송의 경우 뉴스 헤드라인이 시청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양적 연구도 존재한다(이선재, 1997). 기사 제목은 해당 이슈에 대해 어떤 측면을 어떻게

14) 연구자는 정치적으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청와대 문건 유출 논란'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네이버 메인화면의 뉴스 수정 및 업데이트 시기를 관찰하였다.

보여주는지에 따라 전문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인지 수준과 의견 형성에 일조한다는 것이다. 본 코딩에서 기사 제목(방송기사의 경우, 헤드라인)은 ① 지지, ② 중도, ③ 반대로 나누어 각각 통진당 해산 선고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현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찬성 및 지지하는 입장은 '보수',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진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도'는 단순 정보만을 전달하거나 보수와 진보의 관점을 함께 제시한 경우를 의미한다.

기사 제목이 취하는 관점과 더불어 기사 제목이 차용하는 유형도 함께 살펴보았다. 기사 제목 유형은 기사가 어떤 형식으로 제목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본문인용형'은 본문의 내용을 직접인용 형식으로 제목에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증연구에 따르면 이 본문인용형 제목이 기사의 본문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표기되는 경우가 분석기사 전체의 60%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이준용 · 양승목 · 김규찬 · 송현주, 2007). 따라서 기사 제목의 관점과 함께 유형을 살펴보는 일이 전체적인 기사 제목 다양성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코딩에서 기사 제목 유형은 취재원(출연자) 발언 인용, 팩트 열거, 기자 소견으로 구분지어 살펴보았다.

(2) 취재원 다양성

언론이 어떤 취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가는 기사의 내용 및 가치와도 직결된 문제다(김재영, 2006). 리치(Rich, 2005)는 뉴스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전체적인 스토리를 더 신뢰가 가도록 만들어준다고 했다. 객관보도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는 한 어떠한 취재원을 쓰느냐에 따라 언론보도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윤영철, 1992). 예를 들어, 언론사에서 활용하는 취재원의 성별은 수용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평등과 연관이 되고(Zoch & Turk, 1998), 취재원의 유형 및 취재원이 속한 조직의 정치적 성격 등은 기사의 논제를 구축하는 데에 차이를 만들기도 한다(김경모, 2003). 이와 같이 취재원의 유형 및 취재원이 속한 조직의 성격은 뉴스의 경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권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뉴스담론을 제공하고 있으므로(임영호 · 이현주, 2001; Tuchman, 1978) 보도에 드러나 의견 다양성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항목이다.

본 연구에서 취재원 분석의 목적은 '언론매체가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 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취재원의 특성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여 측정했는지 알아본 결과, 취재원의 유형은 크게 성별(Zoch & Turk, 1998)과 소속(Paletz & Entman, 1981; Steinberg, 1980; Stempel &

Culbertson, 1984)으로 나뉘었다. 이와 같은 기존의 논의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취재원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해 취재원의 유무, 숫자, 성별, (세부)소속을 살펴봤다.

(3) 의견 다양성

의견 다양성은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다원성을 확보하고 이에 기초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디어 다양성 내에서도 특히 중요한 개념이다(이이제 · 송진, 2011). 의견 다양성과 관점 다양성은 자주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정치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점 다양성이고 정당 질서를 반영한 균형 있는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견 다양성이라 한다(심영섭, 2010). 즉, 다양한 의견만 추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각 편차에 균형을 맞추는 거시적인 수준의 다양성을 의견 다양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견 다양성을 ‘통진당 해산 선고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정치적 성향 및 관점에 따라 균형 있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로 조작화했다.

의견 다양성을 구성하는 의견(opinion)은 인지(cognition)와 선유경향(predisposition)을 합친 용어로(Zaller, 1992), ‘외부 자극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 정서적 반응의 결합체’를 뜻한다(손영준, 2004, 244쪽). 그러나 뉴스매체를 통해 발현되는 의견이란, 개인의 생각이 외부로 표출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의견을 ‘통진당 해산 선고에 대해 화자의 신념 및 태도가 외적으로 드러난 형태의 평가적 진술(evaluative statement)’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논거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안에 대한 견해가 드러난 모든 문장을 의견의 분석 단위로 삼았다.¹⁵⁾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통진당 해산 선고에 대해 정치적 시각과 신념 및 개인의 태도 등에 따라 비슷한 논조를 띤 의견들을 공통의 부분으로 묶은 것’을 대표 주장이라고 조작화했다. 이 대표 주장을 의견의 방향성을 고려해 크게 네 가지 차원의 입장으로 분류한 것을 대표 의견이라 할 수 있다. 1차적으로 통진당 해산 선고에 대한 의견 문장 2,316개를 분석해 10가지 대표 주장들로 유형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를 다시 사안에 대한 의견의 방향성에 따라 4가지 관점으로 분류하는 2차 작업을 수행하였다(세부 내용은 <표 1> 참조). 이때, 상위 의견에 대한 하위 주장들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도출된 의견과 주장들의 일치성에 대한 코더 간 신뢰도도 측정했다. 명목 수준에서 크리펜도르프(Krippendorff)의 알파

15) 이는 김경모와 송현진(2011)의 연구에서 제시된 유인가 문장(valenced statement)과 논증 문장(argument)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표 1. 통진당 이슈에 대한 대표 의견과 주장별 특징 요약

대표 의견	대표 주장	내용	예시(근거문장)
통진당 해산 선고에 대한 전면 반대	통진당 해산 선 고는 국민주권 짓밟는 행위	현재의 결정은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위 배되므로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 정 당해산에 대한 현재 의 증거(논리) 부족 과 정부의 공안몰이 비난 / 의원직 박탈 도 반대하며 재창당 가능성 언급	“(통진당 해산 선고는) 한국 사법의 흑역사”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집단으로 실성했다.” “(정당해산 결정은) 민주주의의 퇴보” “현재 내부에는 중도파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고와 함께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로 전락했다.” 현재가 통진당 내 일부 자주파(NL) 인사들을 언급하며 “북 한식 사회주의와 연결한 것은 사법 살인” “통진당 강령 어디에도 ‘폭력혁명’이나 ‘체제부정’은 없다” “현재가 지적한 통진당의 실질적 위해 가능성도 구체성이 없다.”
	정당해산 선고로 인해 위축될 민 주주의 강조	통진당 해산 선고로 인해 우리 사회의 자 유와 다양성 등 훼손 우려 / 헌법정신의 본 질 수호 언급	“해산 결정은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소수자들의 정치 적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진보 정치는 계속됩니다. 짓밟힐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소수 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 수 정당을 해산해버린 자기부정 판결”
	현재의 결정을 현 정부와 야권 의 갈등 구도(보 수정권의 진보 탄압 구도)로 치 환	박근혜 정부가 통진 당을 포함한 진보세 력을 탄압한다는 논 리 / 통진당 입장 두둔 하며 정치적 보복에 대해 언급	“비록 현재의 판결이 나왔지만 오는 2016년 총선에서는 국회를 진보의 물결이 덮을 것” “진보를 키운 사람은 오늘의 시련을 준 박근혜 대통령이라 는 말이 나올 것”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행위로 몰고 간다”
통진당의 위헌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현재의 결정 완곡하게 반대	진보적 민주주 의도 민주주의 의 일환이므로 어느 정도 인정 해줘야	통진당 자체의 이념 에 동의하지 않더라 도 그들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지켜줘야 함 / ‘일반 화의 오류’ 지적	“통진당 해산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 방해” “통진당 의원의 소속의원직 상실은 관련 규정의 부재로 후 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통진당 이념을 단정적으로 해석해 해산 결정한 것은 무리 가 있다.” “사건 모임(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이 정당 전체의 의사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당해산은 공론 의 장의 몫이므로 현재의 개입은 도 가 지나친다는 의 견과 지금의 현재 의 역할 및 구성 원 등에 대한 문 제제기	현재의 결정은 존중 하나 민주적 기본질 서 수호가 가장 중요 / 정당의 해산은 국민 들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 / 국민 여론 과 동떨어진 결정	“현재의 정당해산심판권을 인정한다 해도 정당해산은 선 거 등 공론의 장에 맡겨야지 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현재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국회 다수당도 함부로 못 하는 의원 제명을 현재가 ‘행정 재판” “그냥 놔둬도 자연사할 정당인데 현재의 판결로 해산까지 하는 건 부당” “과연 통진당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는가에 대해 서는 역사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

대표 의견	대표 주장	내용	예시(근거문장)
통진당의 위헌성은 인정하지만, 해산 선고의 절차가 완벽하다고도 보지 않음	통진당은 위헌정당이 맞으나, 현재의 해산 결정과정 및 선고 이후 후폭풍에 대한 우려 표시	통진당 해산 선고는 찬성하나, 정당해산 결정이 너무 시급했다는 의견 /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에 대한 의구심	<p>“현재가 그만큼 확신을 가졌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사회의 상당한 보수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압도적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히 거세지 않겠나.”</p> <p>“정당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1년이라는 심리기간이 충분했는지 생각해볼 문제다.”</p> <p>“의원직 상실에 대해 여러 법적 논란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결정은 확정력을 갖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p>
	통진당의 기본이념은 국민정서에 어긋나지만, 현재의 결정에 대한 토론이 필요	통진당의 이념은 전반적인 국민정서에 벗어나므로 해산 선고에 찬성 / 해산을 통한 발전 기대	<p>“개인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순 없지만 대중활동을 했던 사람들로써 우리 색깔을 가지면서도 국민 정서에 맞는 가치를 표방해야 한다.”</p> <p>“지난 과오를 돌아보고 이 시대에 어떻게 조응할지 성찰해야 한다.”</p> <p>“현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p>
통진당 해산 선고에 대한 적극 찬성	통진당의 성격을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연계	통진당 소속인 이석기 의원을 통진당의 주도세력으로 언급 / RO세력(내란음모 사건)과 통진당의 연계성에서 당의 해산이 유 참음	<p>“통진당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락과 모든 면에서 같거나 유사”</p> <p>“통진당은 이미 정당이라기보다는 이적단체”</p> <p>“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단을 대한민국 헌법이 정당으로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p> <p>“이석기 의원 등이 연루된 경기동부연합 지하혁명조직(RO)은 통진당 활동에 포함”</p>
	통진당 해산 선고로 종북 숙청과 견강한 진보세력 형성 기대	현 진보세력에 대한 비판(종북, 사회주의, 북한 언급) / 더 나아가 통진당 해산 선고로 인한 미래의 긍정적인 진보 형성 기대	<p>“이번 현재 결정을 계기로 진보세력이 중복 연관성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 진보정당들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p> <p>“대한민국이 중복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중복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p> <p>“통진당 해산이 진보를 내건 중복세력을 영구히 퇴출시키고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분쇄하는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p> <p>“통진당의 우리사회에 주는 추상적 위험(잘못된 이념, 사상 등)이 실질적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p>
	통진당 활동의 위헌성 부각	통진당 해산 선고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를 위한 필연적 조치 / 이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강조하며 해산에 전적인 지지 표명	<p>“통진당 해산 선고 결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대한 의미를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현재가 해석한 것”</p> <p>“현재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당방위/ 현재는 헌법의 수호기관”</p> <p>“정당해산 심판은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p> <p>“헌정질서가 바로 선 날”</p> <p>“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p>

(Alpha) 값을 구한 결과 0.91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¹⁶⁾

3) 매체 내 다양성(내적 의견 다양성)의 측정

본 연구에서 의견 다양성의 정도를 엔트먼(1985)과 나폴리(1999)등 기존 학자들이 분류한 다양성의 두 가지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이는 각각 ‘매체 내 다양성’과 ‘매체 간 다양성’으로 나뉜다. 매체 내 다양성은 ‘내적 의견 다양성’으로 각 언론이 갖는 의견의 다양성을 뜻한다. 한편, 매체 간 다양성은 ‘외적 의견 다양성’으로 언론사 별로 위치한 이념적 상황(진보 또는 보수)을 대변한다.

우선, 내적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통진당 해산 선고 관련 보도에서 인용한 취재원의 발언과 기자의 의견, 그 외의 외부 필진의 의견 등을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끼리 묶는 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은 귀납적 의견 도출 과정을 반복하여 궁극에는 10가지의 정파적·이념적 대표 시각(주장)들을 바탕으로 4가지 대표 의견들을 추출해낼 수 있었다. 이는 각 매체 내에서 해당 이슈를 둘러싸고 얼마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의견 다양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개별 언론매체가 4가지 유형의 대표 의견을 얼마나 다양하게 반영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체 내 의견 다양성 지수는 심슨의 D(Simpson's D)를 통해 계량화하였다.¹⁷⁾

다양성은 전체 중 각 분류 항목(본 논문에서는 대표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McDonald & Dimmick, 2003)이자, 그 비중이 얼마나 고르게 퍼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이진영·박재영, 2010). 심슨의 D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두 개의 샘플을 무작위로 선정했을 때 이것이 다른 항목으로 분류될 확률을 의미한다. 0에 가까울수록 모든 샘플이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1에 가까울수록 모든 샘플이 다른 항목으로 분류될 경우의 수가 올라간다.

4) 매체 간 다양성(외적 의견 다양성)의 측정

매체 간 다양성은 앞서 도출한 10가지의 대표 주장들을 바탕으로 추출된 4가지 의견의 이

16) 코더 3명이 각각 10개의 주장을 바탕으로 개별 주장이 비슷한 의견을 내비친다고 생각하는 대표 의견에 코딩하는 방식으로 신뢰도를 구하였다. 즉, 대표 주장을 각자가 생각하는 그룹으로 묶어 1번 그룹은 대표 의견 1로, 2번 그룹은 대표 의견 2 등으로 코딩한 것의 신뢰도를 확인한 것이다.

17) Simpson's D = $1 - \sum_{i=1}^k p_i^2$ (k는 유목의 수(여기서 k = 4), p_i 는 i번째 항목의 비율($i = 1, \dots, k$))

념적 지향점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측정되었다. 대표 주장들을 바탕으로 코더 3명이 해당 의견의 이념성을 토대로 대표 의견의 방향성을 구분하는 작업을 거쳤다. 4가지 대표 의견은 각각 진보-중도진보-중도보수-보수에 이르는 정치적 이념성을 띠고 있었다. 우선, (1) '통진당 해산 선고에 대한 전면 반대' 관점(진보)은 통진당 해산 선고가 국민주권을 짓밟는 행위이고 이로 인해 위축될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현재의 결정을 현 정부와 야권(혹은 보수와 진보세력)의 갈등구도로 치환해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다음으로 (2) '통진당의 위헌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현재의 결정 완곡하게 반대'하는 관점(중도진보)은 현재가 비판한 진보적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의 일환이므로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정당해산은 공론장의 몫이므로 현재의 개입은 도가 지나쳤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대로 이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면, (3) '통진당의 위헌성은 인정하지만, 해산 선고의 절차가 완벽하다고도 보지 않는다'는 관점(중도보수)이 있었다. 정당해산 결정이 현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만큼 결정이 너무 시급했다는 의견과 통진당 이념은 전반적으로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만, 현재의 결정에는 대국민적인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마지막으로 (4) '통진당 해산 선고에 대한 전면 찬성' 관점(보수)은 통진당의 성격을 이석기 의원 혹은 내란음모 사건과 연계시키거나 현 진보세력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중복세력에 대한 숙청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념적 성향으로 묶인 4개의 대표 의견들은 외적 의견 다양성 측정을 위해 지표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는 윤영철, 김경모, 그리고 김지현(2015)의 주제 프레임의 이념적 방향성을 지표화한 연구를 참고해 각각의 의견(입장)에 가중치를 두고 이념적 지향점 점수를 산출했다.¹⁸⁾

5) 코딩 절차와 신뢰도

본 연구의 데이터 코딩은 언론학 전공의 대학원생 3명이 함께 진행했다. 전체 코딩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 목적과 측정 항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딩 교육은 내용분석 항목에 대한 정의와 다양성 측정의 주된 항목인 의견 문장의 유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예시를 통한 코딩 숙지 훈련이었다. 본격적인 코딩 이전에 코더 간 신뢰도

18) 가장 진보적인 통진당 해산 선고 전면 반대 입장에는 -1.5점을, 가장 보수적인 통진당 해산 선고 전면 찬성 입장에는 +1.5점을 부여했다. 양 극단 사이 중도진보에 해당하는 통진당 해산 선고 부분 반대 입장에는 -0.5점을, 중도보수에 해당하는 통진당 해산 선고 부분 찬성 입장에는 +0.5점을 가중치로 두고 계산했다. 이념적 지향점 = $\sum(\text{의견 문장 수} \times \text{프레임(의견) 가중치}) / \text{총 의견 문장 수}$

검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7개 언론매체별로 전체 분석기사의 약 10%에 해당하는 57건의 기사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1차 신뢰도 코딩 결과 신뢰도가 기준에 못 미치는 항목에 한해 코딩 재교육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코딩에 돌입했다.

코더 간 신뢰도는 크리펜도르프(Krippendorff)의 신뢰계수 알파(Alpha)를 이용해 총 10개의 분석변인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기사 제목 다양성의 경우 9건의 사설을 포함한 606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제목의 유형과 입장(관점)의 신뢰계수를 구했다. 취재원 다양성의 경우 1,638명의 취재원을 대상으로 취재원의 유무, 숫자, 성별, 소속, 세부 소속의 신뢰계수를 구했다. 마지막으로 의견 다양성은 의견 문장 수, 통진당 관련 의견 문장 수, 대표 의견의 신뢰도를 측정했다. 최종 크리펜도르프 신뢰계수는 최소 0.85에서 최대 1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4. 분석결과

1) 기사 제목 관점 다양성

기사 제목의 입장은 사안에 대한 보수, 중도, 진보의 관점을 구분하기 위해 코딩하였다. 전체 기사 제목 중 통진당 해산 선고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표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40.1%), 그다음이 지지하는 입장(31.4%), 마지막이 반대하는 입장(28.5%) 순이었다.

언론매체별 기사 제목에서 드러난 해당 이슈를 바라보는 이념적 성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념적 지향성을 뚜렷하게 내비쳤던 신문매체의 경우 <조선일보>가 통진당 해산 선고 지지 입장(보수)을 70.4%, <한겨레>가 반대 입장(진보)을 67.2%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압도적인 비율로 한 쪽 시각만 토대로 기사 제목을 구성하는 편향성이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방송매체는 지상파채널과 종편채널 모두 중도 입장의 비율이 과반을 넘거나(KBS 57.1%, SBS 53.3%, JTBC 55.2%)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채널A 48.1%). 다수를 차지하는 중도 입장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채널이 상대적으로 종편채널에 비해 반대 입장(보수)과 지지 입장(진보)의 균형을 비슷하게 맞춘 것이다. 반면, JTBC와 채널A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JTBC는 반대 입장(34.5%)을 지지 입장(10.3%)보다, 채널A는 지지 입장(37.0%)을 반대 입장(14.8%)보다 더 빈번하게 내비쳤다.

한편, 포털매체는 중도 입장이 가장 빈번하게 기사 제목에 노출되었고(43.1%) 지지

입장(30.9%)이 상대적으로 반대 입장(26.0%)보다 더 많이 쓰였지만, 비교적 비슷한 수준에서 관점의 균형이 맞추어져 있었다.

2) 취재원 소속 다양성

뉴스 가치가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원일수록 기사의 앞부분에 배치시키는 기자의 의도를 이해하면(Hallin, Mandoff, & Weddle, 1993), 본 연구의 취재원은 기사당 출연 순서대로 최대 5명까지만 중복 코딩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취재원의 소속은 전체 취재원 중 야당 관계자(485건, 29.6%)가 가장 많았다. 야당은 통진당(291건, 17.8%), 새정치민주연합(117건, 7.1%), 정의당(31건, 1.9%), 기타 정당(25건, 1.5%) 순으로 자주 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다음으로 정부 및 여당 관계자(367건, 22.4%)가 취재원 소속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세부 소속으로 새누리당(118건, 7.2%), 법무부(89건, 5.4%), 청와대(47, 2.9%) 등이 있었다. 분석이슈가 헌법 및 법원과 관련되다 보니 법조계 관련 취재원이 338건(20.6%)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법조계 내에서는 단연 헌법재판소(225건, 13.7%)가 전체 취재원 세부 소속을 통틀어 통진당 다음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전문가 그룹이 163건(10.0%)으로 꽤 높은 비율로 기사에 등장하였고, 시민단체(119건, 7.3%)¹⁹⁾ 소속 취재원도 비교적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취재원 소속을 매체별로 교차분석해본 결과, <조선일보>와 채널A 같은 보수 성향의 매체가 정부·여당 소속 취재원보다 야당 소속 관계자를 더 자주 취재원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일보>는 야당 소속 관계자가 66명(38.8%)으로, 정부·여당 관계자 17명(10.0%)보다 취재원 출연 빈도가 더 높았고, 채널A도 야당 소속이 40명(28.8%)으로 정부·여당 소속 37명(26.6%)보다 약간 더 높은 출연 빈도를 기록했다. 그 이유는 통진당 해산 선고를 지지하는 보수 측 언론사들은 그들과 반대되는 성향의 취재원 발언을 인용하여 해당 주장을 반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사실을 통해, 채널A는 스튜디오 인터뷰 형식을 통해 취재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았다.²⁰⁾

19) 시민단체는 각 단체가 지닌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수 성향 시민단체(32건, 2.0%), 진보 성향 시민단체(56건, 3.4%), 성향이 드러나지 않은 시민단체(25건, 1.5%)로 나누어 코딩하였다.

20) <조선일보> 12월 20일자 기사 “사실 통진당 ‘꼼수 부활’ 막아야 진짜 진보 정당 길 열린다”를 예로 들어본다. 이 기사에서 인용된 취재원은 총 2명이고 이들 모두 야당 소속 관계자로 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와 진보당 오병윤 전 원내대표였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정희 의원의 “어떤 정권도 진보 정치를 막을 수 없고 진보당 그 누구도 진보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발언과 오병윤 원내대표의 “(현재가 통진당을) 해산하면 다시 만들면 된다”라는 발언을 토대로 통진당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통진당 해산 선고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며 필자는

3) 의견 다양성

본 연구에서 의견 다양성은 뉴스를 구성하는 관점 및 입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분석 기사 중 ‘통진당 해산 선고’ 관련 의견이 포함된 기사는 496건으로 의견이 포함된 전체 기사(545건) 중 91.0%를 차지했다. 대표 의견 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전면 반대 입장(990건, 42.7%)이었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전면 찬성 입장(945건, 40.8%)이 두 번째로 많았고, 부분 반대 입장(290건, 12.5%)은 그다음 순이었다. 한편, 부분 찬성 입장(91건, 3.9%)은 다른 의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매체별로 <조선일보>(62.1%)와 KBS(64.5%), SBS(58.2%), 채널A(56.2%)는 ‘통진당 해산 선고 전면 찬성’ 입장을 과반 이상으로 빈번하게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겨레>(51.9%)과 JTBC(54.8%), 네이버(45.1%)에서는 ‘통진당 해산 선고 전면 반대’ 입장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분석 매체 중 유일하게 네이버만 특정 의견 제시에 있어서 50%를 넘기지 않았다.

대표 의견을 10개의 대표 주장으로 세분화하여 검토한 결과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 매체별로 출현 빈도가 제일 높았던 주장은 <조선일보>의 경우 해산 선고 전면 찬성의 관점을 고수한 ‘헌 진보세력에 대한 비판’ 주장(26.9%)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부분 찬성 입장인 ‘짧았던 심리기간에 대해 우려’(1.6%)는 가장 적게 등장했다. <한겨레>는 해산 선고 전면 반대 입장에 해당하는 ‘국민주권을 짓밟는 행위’ 주장(33.4%)이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외는 반대로 이슈에 대한 부분 찬성과 전면 찬성 입장에 포함된 ‘짧았던 심리기간에 대한 우려’, ‘선고에 대한 속의 필요’, ‘통진당과 RO에 대한 연계성’ 주장이 각각 등장비율 2.4%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지상파 KBS, SBS와 종편 채널A에서는 전면 찬성에 해당하는 ‘자유 민주주의 질서 수호’ 주장(각 35.5%, 31.0%, 34.6%)이 제일 많이 발견됐다. 반면, JTBC와 네이버는 진보 입장인 ‘국민주권을 짓밟는 행위’ 주장(각 30.6%, 29.0%)이 가장 높은 등장비율을 보였다. SBS와 채널A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질서 수호’와 대척점에 있는 ‘국민주권을 짓밟는 행위’라는 의견이 두 번째로 많이 제시된 주장이었다.

“이침에 종북 세력과 절연하고 이들의 정치권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라는 강경한 어조를 내비쳤다.

채널A 12월 22일자 뉴스 “통진당 해산 결정”의 사각지대 있다?”를 살펴본다. 이 뉴스에서 활용한 취재원은 자사의 성시온 정치부 기자를 제외한 통진당 이정희 전 대표와 이석기 전 의원이었다. 해당 뉴스는 스튜디오에 기자가 직접 나와서 영상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반박성 멘트를 이어가는 형식을 띠었다. 예를 들어,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정희 의원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스튜디오 나온 기자와 앵커들이 “전직 통진당 의원들이 현재 결정에 불복 투쟁과 유사 정당 창당이라는 두 트랙 전술을 병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식이었다.

표 2. 매체별 통진당 이슈에 대한 대표 의견과 주장의 유형 (단위: 문장)

대표 의견	대표 주장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JTBC	채널A	네이버	합계
전면 반대	국민주권 짓밟는 행위	43	123	13	14	19	47	396	655
		(17.0%)	(33.4%)	(21.0%)	(25.5%)	(30.6%)	(30.7%)	(29.0%)	(28.3%)
	민주주의 위축	12	29	2	3	8	2	121	177
		(4.7%)	(7.9%)	(3.2%)	(5.4%)	(12.9%)	(1.3%)	(8.9%)	(7.6%)
	현 정권의 정치적 탄압	7	33	4	1	9	6	98	158
		(2.8%)	(9.0%)	(6.5%)	(1.8%)	(14.5%)	(3.9%)	(7.2%)	(6.8%)
부분 반대	진보적 민주주의 인정	7	38	0	3	3	0	100	151
		(2.8%)	(10.3%)	(0%)	(5.4%)	(4.8%)	(0%)	(7.3%)	(6.5%)
	정당해산은 공론의 장 룯	12	39	3	3	2	5	75	139
		(4.7%)	(10.6%)	(4.8%)	(5.4%)	(3.2%)	(3.3%)	(5.5%)	(6.0%)
부분 찬성	짧았던 심리 기간에 대한 우려	4	9	1	1	0	2	21	38
		(1.6%)	(2.4%)	(1.6%)	(1.8%)	(0%)	(1.3%)	(1.5%)	(1.6%)
	선고에 대한 속의 필요	11	9	0	0	3	6	24	53
		(4.3%)	(2.4%)	(0%)	(0%)	(4.8%)	(3.9%)	(1.8%)	(2.3%)
전면 찬성	통진당과 RO세력의 연계성	29	9	1	3	4	12	78	136
		(11.5%)	(2.4%)	(1.6%)	(5.4%)	(6.5%)	(7.8%)	(5.7%)	(5.9%)
	현 진보세력에 대한 비판	68	33	16	10	7	20	147	301
		(26.9%)	(9.0%)	(25.8%)	(18.2%)	(11.3%)	(13.1%)	(10.8%)	(13.0%)
	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	60	46	22	17	7	53	303	508
		(23.7%)	(12.5%)	(35.5%)	(31.0%)	(11.3%)	(34.6%)	(22.2%)	(21.9%)
합계		253	368	62	55	62	153	1363	231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기사당 최대 33개 의견 문장까지 중복코딩

4) 의견 다양성 지표 및 분포

의견 다양성은 매체 내 다양성(내적 의견 다양성)과 매체 간 다양성(외적 의견 다양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매체 내 다양성은 개별 언론매체가 4가지 유형의 대표 의견을 얼마나 다양하게 반영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취재원 다양성과 마찬가지로 의견 다양성을 계량화하기 위해 심슨의 D 계산법을 사용했다.²¹⁾ 매체 간 다양성은 개별 언론매체의 이념

표 3. 뉴스매체의 내적 의견 다양성 및 외적 의견 다양성지수(통합)

부문	매체	분석문장 수 (%)	내적 다양성 (Simpson's D)	외적 다양성 (이념적 지향점)
신문	조선일보	253 (10.9)	0.548	0.559
	한겨레	368 (15.9)	0.635	-0.497
방송	KBS	62 (2.7)	0.498	0.516
	SBS	55 (2.4)	0.558	0.373
	JTBC	62 (2.7)	0.601	-0.419
	채널A	153 (6.6)	0.552	0.310
인터넷	네이버	1,363 (58.8)	0.631	-0.146
매체 평균		2,316 (100.0)	0.575	0.099

적 위치를 의미한다. 이 이념적 스펙트럼을 살펴보기 위해 통진당 해산 선고 이슈를 둘러싼 4가지 대표 의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념적 지향점을 수치화했다(〈표 3〉참고). 더불어, 내적 의견 다양성 지수(심슨의 D)와 외적 의견 다양성(이념적 지향점) 지수를 교차시켜 〈그림 1〉에서 그 분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1〉은 7개 매체의 내적 의견 다양성의 크기와 외적 의견 다양성의 스펙트럼을 한데 보여주는 전체적인 의견 다양성 지형도라 할 수 있다. 분포도의 세로축은 통진당 해산 선고 이슈에 대한 외적 의견 다양성, 즉 이념적 지향점을 나타낸다. 양(+)의 수치는 해당 이슈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나타내며, 위쪽으로 갈수록 통진당 해산 선고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지향한다. 반면에 음(-)의 수치는 이슈에 대한 진보적 시각을 대변하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통진당 해산 선고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지향한다. 가로축은 매체별 내적 의견 다양성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양(+)의 방향으로 수치가 커질수록 다양한 의견을 보드 했음을 뜻한다. 세로축과 가로축에 표시된 점선은 각각 외적 다양성과 내적 다양성의 매체 간 평균을 의미한다.

전체 분석 매체 중 〈한겨레〉가 내적 다양성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KBS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겨레〉 다음으로 높은 내적 다양성을 확보한 매체는 네이버(0.631)였고 그 뒤를 이은 세 번째 매체는 JTBC(0.601)였다. JTBC는 분석에 포함된

21) 의견이 하나로 집중되는 경우 매체 내 의견 독점이 심해짐을 의미하고 이 때 심슨의 D 점수는 0에 가까워진다. 반면, 여러 의견이 고르게 노출될 경우 매체 내 의견 다양성이 높아지고 심슨의 D 점수는 1에 근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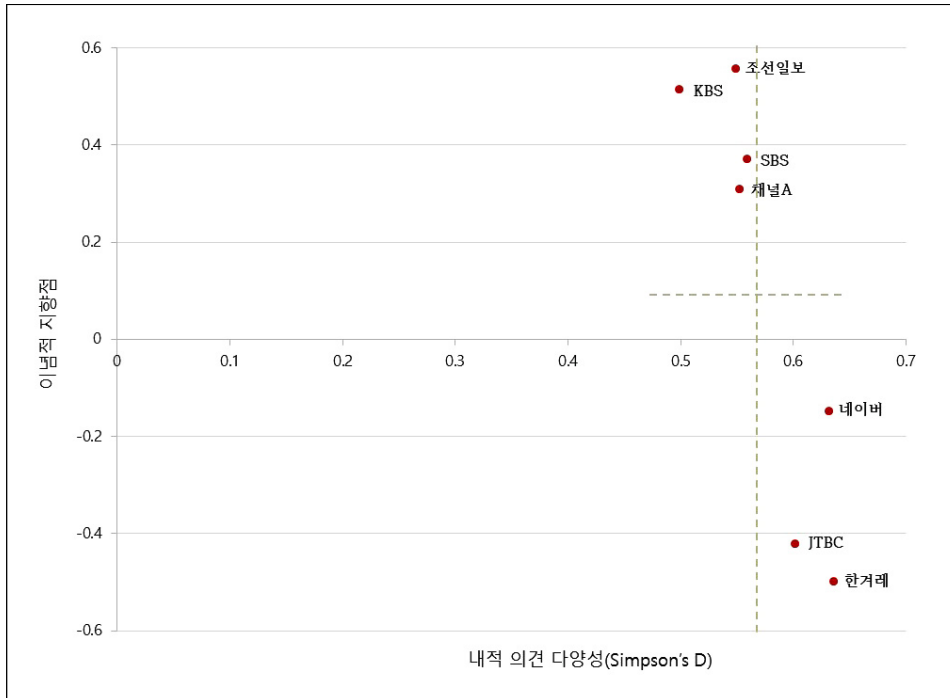


그림 1. 뉴스매체의 내적 의견 다양성과 이념적 지향점의 교차분포도

4개의 방송매체들 중에서 가장 높은 내적 다양성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지상파채널인 SBS(0.558)와 KBS(0.498)보다 높은 수치였다. 또 다른 종편채널 채널A(0.552)도 SBS에 비해 매우 근소하게 낮았지만, KBS보다는 높은 내적 다양성지수를 확보하고 있었다.

한편, 외적 의견 다양성에서는 분석 매체들이 '통진당 해산 선고' 이슈에 대해 각기 다른 이념적 성향을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 정파성 표출에 있어 제약이 없는 신문매체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각각 가장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이념적 지향성을 드러냈다. 방송매체인 KBS(0.516)는 <조선일보> 다음으로 강한 보수적 성향을 띠었고, SBS(0.373)와 채널 A(0.310)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보수적 성향을 보였다. 반면에 JTBC(-0.419)는 <한겨레> 다음으로 강한 진보적 이념성을 내비쳤다. 포털매체 네이버는 (-0.146) 진보적 이념성을 드러냈지만, 전체 중 가장 미약한 수준이었고 비교적 중립에 가까운 외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매체 내 다양성과 매체 간 다양성을 교차시킨 전체적인 의견 다양성 분포도를 살펴보면, 매체 평균을 기준으로 진보적 이념성이 드러난 <한겨레>, JTBC, 네이버와 같은 매체들

은 상대적으로 내적 의견 다양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매체 평균을 기준으로 비교적 보수적 이념성을 내비친 <조선일보>, KBS, 채널A, SBS는 내적 의견 다양성이 낮게 나타났다. 말하자면, 이념적 지향점이 진보에 가까운 매체들의 내적 의견 다양성 폭이 넓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각각 신문, 방송, 포털의 영역에 속한 7개의 매체가 ‘통진당 해산 선고’ 보도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의 내적·외적 의견 다양성을 허용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매체별로 내적 의견 다양성의 수준에 따라 평균을 기준으로 이념적 지향점이 나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5. 결론

이 연구는 한국의 언론매체가 ‘통진당 해산 결정’ 관련 보도에서 얼마나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담아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논쟁적이었던 통진당 해산에 대한 보도의 다양성을 측정함으로써 2016년 현재 한국 언론의 이념적 지형을 경험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를 지닌다. 언론 전반의 이념적 지형도 및 그 변화를 추적하는 작업은 여론 형성의 핵심전제인 다양성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므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미디어정책 수립의 근간이 된다고 하겠다. 연구결과의 주요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사 제목의 다양성 분석결과를 보면 신문매체는 언론사의 이념적 지향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방송의 경우 지상파와 종편채널 모두 신문매체에 비하면 중립의 비율이 높았다. 지상파에 비해 기사 제목에서 이념적 방향을 확실히 드러낸 종편채널도 뉴스 헤드라인에 한해서는 중립을 유지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기사 제목 유형과 본문의 내용을 연계시켜 살펴본 결과, 기사 제목에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내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둘째, 취재원(출연자) 소속 다양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매체에서 야당 관계자, 정부·여당 관계자, 법조계 관계자 순으로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 보면 신문의 경우 <조선일보>는 야당 관계자 활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겨레>는 전문가 활용 건수가 가장 많았다. 방송은 KBS와 SBS는 정부·여당 측 취재원, JTBC와 채널A는 야당 측 취재원을 상대적으로 자주 등장시켰고 네이버는 야당, 정부·여당, 그리고 법조계 순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나 채널A와 같이 보수 성향

이 강한 언론이 야당 소속 취재원을 더 많이 활용한 이유는 ‘통진당 해산 선고’ 반대 측 발언을 찬성 측 주장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보수 매체가 진보 성향의 취재원을 적극 활용했던 이유는 진보 성향의 주장을 확산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해당 성향의 취재원 발언을 통해 ‘위험성’과 ‘부당성’을 드러냄으로써 진보 측 주장을 반박하거나 보수적 견해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공적 사안에 대해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다양성을 제공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독자의 숙의에 크게 도움이 되는 논변 구성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김경모 · 정은령, 2012).

셋째, 개별 매체 수준에서 〈한겨레〉가 ‘통진당 해산 선고’ 사안에 있어 진보적 이념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냈던 반면, 그 대척점에 〈조선일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결과는 진보와 보수 진영을 대표하고 있는 두 매체이므로 다분히 예상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매체가 공통적으로 보수적 논조를 유지하고 있음도 권력과 방송의 관계를 대변해주고 있다. 하지만 포털매체인 네이버는 평균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도보다는 약간 진보에 위치한 입장을 취했으며, 내적 의견 다양성 차원에서도 매우 적극적이어서 보수와 진보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보의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보면 〈조선일보〉·KBS·SBS·채널A가 보수를, 〈한겨레〉와 JTBC가 진보를, 그리고 네이버가 중도를 대표하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하겠다. 보수신문인 〈동아일보〉 계열의 채널A가 KBS나 SBS보다 보수 색채를 적게 드러냈고, JTBC가 진보 성향을 보였음은 종편의 보도정책이 어느 정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암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매체 내에서 의견 다양성을 얼마나 허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매체 간의 차별성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의 내적 다양성이 SBS나 채널A, 그리고 〈조선일보〉보다도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내적 의견 다양성을 가장 적게 허용했음은 가장 획일적이고 선명한 논조를 보였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KBS가 이 사안의 보도에서 공정성 책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준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보았음을 말해준다. 이를테면 법적으로 공정성 책무를 안고 있는 두 방송매체인 KBS(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SBS와 채널A도 포함하여)와 JTBC가 정반대의 보도 성향을 보여주고 있음은 별도의 해석을 요구한다. KBS는 현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이 사안은 더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합의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으나, JTBC는 현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간주했다고 볼 수 있다. 할린(1986)의 용어를 빌리면, KBS는 이 문제를 “합의의 영역”으로 보았던 반면, JTBC는 여전히 “합법적 논쟁의 영

역"에 속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JTBC는 현재의 결정에 대한 반론도 적극적으로 보도에 포함시켰다고 하겠다. 이처럼 현재의 결정이 난 이후에도 언론사들마다 통진당 해산 이슈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의 정파성이 최종심급의 보도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네이버가 이 사안에 대해 중도적 입장을 보였을 뿐 아니라 내적 의견 다양성도 적극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이다. 작금의 포털뉴스가 사회 여론형성에 주요한 매체로 부상하면서 영향력 있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동찬, 2008; 황성기, 2007). 포털은 매체의 특성상 맥락이 서로 다른 뉴스들을 무작위로 편집하고 배치하는 가치의 랜덤화를 발생시키고 뉴스의 탈규범화 및 탈가치화 현상을 낳을 수도 있다(황용석, 2005). 매체의 보도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포털뉴스의 법적·사회적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논의는 영향력 있는 미디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콘텐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다. 즉, 여론에의 도달률이 높은 미디어라면 사회의 파편화와 양적, 그리고 질적 수준에서 숙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견 다양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식인 것이다. 이는 여러 매체로부터 뉴스를 큐레이션(curation)하는 포털이 다양한 입장 및 논조, 정파성을 띤 언론사의 기사를 고르게 노출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 네이버는 '통진당 해산 선고' 이슈를 현재의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논쟁의 영역에 두고 현재의 결정에 반대되는 입장을 다룸으로써 뉴스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사안 보도에 있어 네이버는 중립성과 다양성의 책무를 어느 정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언론매체의 외적·내적 의견 다양성을 경험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각 매체의 이념적 위치뿐 아니라 각 매체가 얼마나 다양한 의견을 보도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이념적 지형도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한국 언론의 이념적 지형도가 진화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조건인 의견 다양성을 구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미디어 다양성 정책 자료를 제공해준다. 반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한계를 지닌다. 하나는 통진당 해산 관련 보도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이 연구가 밝혀낸 언론의 이념적 지형도를 다른 논쟁적 쟁점-이들테면 노사분규, 한미 혹은 한중 관계 등-에까지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연구가 현재의 결정 이전 보도를 분석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현재 결정 전후 간의 보도 차이를 경험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참고 문헌

- 김경모 (2003). 텔레비전 뉴스의 성 역할구도 재생산 보도관행과 저널리스트의 성차: KBS, MBC, SBS의 저녁종합뉴스 내용분석. <한국방송학보>, 17권 3호, 197-238.
- 김경모 · 송현진 (2011). 메시지 품질과 토론 연결망의 구조적 위치, 그리고 여론지도력: 서울시 '무상 급식 논란'의 온라인 정치토론 사례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6호, 194-218.
- 김경모 · 정은령 (2012). 내러티브 프레임과 해석 공동체: '저작권 환수 논란'의 프레임 경쟁과 해석 집단의 저널리즘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7호, 109-136.
- 김세은 (2010, 5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유사성과 차별성: 1면 구성과 사설의 이념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한국 신문 저널리즘의 성찰 및 미래 전략 세미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 김재영 (2006). 취재원 활용 관행의 차이: <조선일보>와 <옥천신문>의 경우. <한국언론학보>, 50권 1호, 137-161.
- 나스미디어 (2013). 2013 NPR(Netizen Profile Research). URL: <http://me2.do/F2GPynkm>
- 라효진 (2014, 1, 2). JTBC, 신뢰도 면에서 MBC · SBS 추월했다. <스타뉴스>, URL: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4010216163280176&type=1&outlink=1>
- 문재완 (2003).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간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론과 법>, 통권 2호, 7-50.
- 박주연 · 전범수 (2007). <미디어 다양성: 디지털 융합시대의 미디어 다양성 정책>. 서울: 한국언론재단.
- 손영준 (2011). TV 뉴스 공정성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시민은 동등 비중의 원칙을 더 원한다. <한국방송학보>, 25권 5호, 122-158.
- 송용희 (2005). 한국 종합일간지 기사의 사실성 입증 기제에 관한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회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80-104.
- 심훈 (2005). 20세기 하반기의 미 신문 1면 보도에 대한 다양성 분석: 뉴스 토픽과 정보원의 분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0호, 175-201.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2013). <뉴스미디어의 내용 다양성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2015). <여론집중도 조사보고서>. 서울: 제2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 윤영철 (1992, 3월). <언론환경의 변화와 보도의 다양성: 반공(반북)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와 그 한계>.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제7차 '쟁점과 토론' 포럼.
- 윤영철 · 김경모 · 김지현 (2015). 의견 다양성을 통해 본 언론매체의 이념적 지형도: '경제민주화' 이슈 보도의 의견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통권 89호, 35-64.
- 이동근 (2004).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다양성에 관한 일고찰: 정보원 및 프레임 분석을 통하여. <한국언론학보>, 48권 4호, 218-242.
- 이동찬 (2008). 포털뉴스의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통권 30호, 1-25.

- 이선재 (1997). <텔레비전 뉴스의 자막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원락 (1991). <한국 신문의 '관급보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이제 · 송진 (2011). 방송 뉴스 시장의 관점 다양성: 대북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6호, 277-303.
- 이준웅 (1997). 언론의 틀 짓기 기능과 여론의 변화. <언론과 사회>, 17권, 100-135.
- 이준웅 · 양승목 · 김규찬 · 송현주 (2007). 기사 제목에 포함된 직접인용부호 사용의 문제점과 원인. <한국언론학보>, 51권 3호, 64-90.
- 이준웅 · 최영재 (2005). 한국 신문위기의 원인: 뉴스 매체의 기능적 대체, 저가치 제공, 그리고 공정성 위기. <한국언론학보>, 49권 5호, 5-35.
- 이진로 (2011, 4월). <종합편성채널과 지역방송>.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부여: 롯데리조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이진영 · 박재영 (2010). 한국 신문 보도의 다양성 연구: 한겨레 시장 진입 전후(1986-2005)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3호, 301-325.
- 이희완 (2006).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제목 바꾸기로 뉴스의 진정성 하락. <신문과 방송>, 통권 422호, 128-132.
- 임영호 (2005). 신문 저널리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및 지원 방안. 김영옥 (편). <위기의 한국신문: 현황, 문제점, 지원방안> (149-224쪽). 서울: 한국언론재단.
- 임영호 · 이현주 (2001). 신문기사에 나타난 정보원의 권력 분포: 1949-1999년 <동아일보> 기사의 내용분석. <언론과학연구>, 1권 1호, 300-330.
- 임정수 (2004). 세 가지 미디어 집중현상의 개념화와 미디어 산업규제 정책에서의 함의.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138-164.
- 장호순 (2008).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론 분석. <언론과 법>, 7권 1호, 137-167.
- 정연우 (2010).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 <방송통신연구>, 통권 70호, 60-84.
- 조은영 · 유세경 (2014). 종합편성 채널 도입과 방송 뉴스 보도의 다양성: 철도노조파업 이슈에 대한 지상파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 보도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권 3호, 433-461.
- 조익환 · 이상우 (2012). 경쟁 환경에 따른 신규 미디어와 기존 미디어의 프로그램 다양성 연구: 기존 지상파 방송과 신규 종합편성 채널의 다양성 비교. <한국방송학보>, 26권 6호, 177-213.
- 최민재 · 김위근 (2006). 포털 사이트 뉴스서비스의 의제설정 기능에 관한 연구: 제공된 뉴스와 선택된 뉴스의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437-463.
- 최영재 (2011). 분열 정치와 분열 언론 그리고 분열 여론의 악순환 이론. 강준만 (편), <한국 사회의 소

- 통 위기: 진단과 전망》(137-152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현주 (2010). 한국 신문 보도의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54권 3호, 399-426.
- 한동섭 · 임중수 (2001, 10월). 〈미디어의 뉴스원 활용과 헤게모니 투쟁에 대한 고찰: 북한보도에서의 뉴스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서울: 서강대학교.
- 황성기 (2007).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통권 21호, 197-232.
- 황용석 (2005). 포털저널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 포털뉴스의 언론적 특성과 그 영향. 〈언론중재〉, 25권 4호, 1-27.
- 황치성 (2008). 〈갈등이슈 보도의 새로운 접근〉. 서울: 한국언론재단.
- Albarran, A. B., Pilcher, A., Steel, D., & Weis, J. (1991). Trends in network prime-time programming 1983-1990: The emergence of the Fox network. *Feedback*, 23(4), 2-5.
- Alexander, P. J., & Cunningham, B. M. (2007). Public and private decision making: The value of diversity in news. *Media Diversity and Localism: Meaning and Metrics*, 79-96.
- Baker, C. E. (2008). Viewpoint diversity and media ownership.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61, 651-672.
- Bransford, J. D., & Johnson, M. K. (1973). Considerations of some problems of comprehension. In W. G. Chase (Eds.),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pp. 383-438). Orlando, FL: Academic Press.
- Curran, J. (1991). Rethinking the media as a public sphere. *Communication and citizenship: Journalism and the public sphere in the new media age*, 27-57.
- Dahl, R. (1991). *Democracy and its Critic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Dahlberg, L. (2007). Rethinking the fragmentation of the cyberpublic: from consensus to contestation. *New Media & Society*, 9(5), 827-847.
- Einstein, M. (2004). *Media diversity: Economics, ownership, and the FCC*. London, UK: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ntman, R. M. (1985). Newspaper competition and First Amendment ideals: does monopoly matter?. *Journal of Communication*, 35(3), 147-165.
- Entman, R. M., & Wildman, S. S. (1992). Reconciling economic and non-economic perspectives on media policy: Transcending the "marketplace of ideas". *Journal of Communication*, 42(1), 5-19.
- Gitlin, T. (1981).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lasser, T. L. (1984). Competition and diversity among radio formats: Legal and structural issue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28(2), 127-142.
- Grant, A. E. (1994). The promise fulfilled? An empirical analysis of program diversity on television. *Journal of Media Economics*, 7(1), 51-64.

- Groseclose, T., & Milyo, J. (2005). A measure of media bia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4), 1191-1237.
- Hallin, D. (1986). *The uncensored war*.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llin, D. C., & Mancini, P. (2004). *Comparing media systems: Three models of media and polit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lin, D. C., Manoff, R. K., & Weddle, J. K. (1993). Sourcing patterns of national security reporter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0(4), 753-766.
- Li, S. C., & Chiang, C. C. (2001). Market competition and programming diversity: A study on the TV market in Taiwan. *The Journal of Media Economics*, 14(2), 105-119.
- Litman, B. R. (1979). The television networks, competition and program diversity.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23(4), 393-409.
- McDonald, D. G., & Dimmick, J. (2003).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diversity. *Communication Research*, 30(1), 60-79.
- McQuail, D. (1992). *Media performance*. London, UK: Sage.
- Mullard, M. (1999). Discourses on citizenship: the challenge to contemporary citizenship. In J. Bussemaker (Ed.), *Citizenship and Welfare State Reform in Europe* (pp. 12-26). London, UK: Routledge.
- Napoli, P. M. (1999). Deconstructing the diversity principle. *Journal of Communication*, 49(4), 7-34.
- Napoli, P. M. (2003). The Public Interest Obligations Initiative: Lost in the Digital Television Shuffl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7, 153-156.
- Paletz, D. L., & Entman, R. M. (1981). *Media power politics*. New York, NY: Free Press.
- Rich, C. (2005). *Writing and Reporting News (4th ed.)*. Belmont: Wadsworth.
- Soloski, J. (1989). Sources and channels of local news. *Journalism Quarterly*, 66(4), 864-870.
- Steinberg, C. S. (1980). *The information establishment: our government and the media*. New York, NY: Hastings House Book Publishers.
- Stempel, G. H., & Culbertson, H. M. (1984). The prominence and dominance of news sources in newspaper medical coverag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61(3), 671-676.
- Sunstein, C. R. (2001). *Designing democracy: What constitutions do*.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unstein, C. R. (2003). *Why societies need diss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NY: Free Press.
- Van der Wurff, R., & Van Cuilenburg, J. (2001). Impact of moderate and ruinous competition on diversity: The Dutch television market. *Journal of Media Economics*, 14(4), 213-229.
- Webster, J. G. (2007). Diversity of exposure. In P. M. Napoli (ed.), *Media diversity and localism: Meaning and metrics* (pp. 309-326). London, UK: Routledge.
- Wildman, S. (2007). Indexing diversity. In P. M. Napoli (Ed.), *Media diversity and localism:*

Meaning and metrics (pp. 151-176). London, UK: Routledge.

Zaller, J.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Zoch, L. M., & Turk, J. V. (1998). Women making news: Gender as a variable in source selection and us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5(4), 762-775.

최초 투고일 2016년 10월 13일

게재 확정일 2016년 11월 11일

논문 수정일 2016년 11월 28일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Opinion Diversity of Newspaper, Broadcasting and the Internet Portal Site

The News Coverage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UPP) Disbandment Ruling'

Hyunjoo Noh

M.A., Yonsei University

Youngchul Yoon

Professor,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opinion diversity in two dimensions (within-media and between-media) among newspaper, broadcasting and the internet portal site in South Korea. Total of seven media outlets (*Chosun Ilbo*, *Hankyoreh*, KBS, SBS, Channel A, JTBC, and Naver) were analyzed with their news coverage on the issue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UPP) disbandment ruling'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December 19, 2014 since the court's decision sparked ideological debates throughout Korean society. Opinion diversity was measured in news headline, news source and two dimensions of diversity (internal and external diversity) respectively. In terms of internal diversity, *Hankyoreh* recorded the highest level while KBS took the lowest among seven news media that we examined. Wide spectrum of ideological inclination was also found with regard to external diversity. *Chosun Ilbo* placed the furthestmost position inclined to conservatism from neutral reportage, whereas *Hankyoreh* exposed the most progressive disposition. Meanwhile, placing itself to the nearest spot around neutrality, the portal news Naver scored the lowest point of ideological inclination among other media. To conclude, this study pursued an investigation to see opinion diversity of Korean media in both internal and external dimensions respectively. On the basis of numerical data of opinion diversity, it was possible to depict an intersectional distribution map of opinion diversity of Korean media. Lastly, this study was proceeded including the internet portal site (Naver) in the concept of the news media since the information it covers holds profound impact on public opinion. That might leave a room for further discussion about whether and to what degree should authority regulate its contents as 'a press.'

Keywords: opinion diversity, internal diversity, external diversity, ideological inclination, portal news